

# 감별업계 현황과 전망

대담자 / **윤중덕** <구라파지부장> **남일우** <감별분과위원>  
**조성철** <감별분과위원> <무 순>

양계 협회와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면  
해외진출전망은 밝다!

### ■ 요즘! 유럽 총지부의 상황은 어떤지요? ■



<윤중덕 지부장>  
<스위스 주재>

최근 구라파지역 한국  
감별사들도 꽤 많아져서  
80여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많은 반면에  
일본인 감별사들보다 단  
합이 안되는 것이 큰 힘  
입니다.

본지부로서는 요즘 단  
합추구방안을 모색중이  
며 어떻게 하면 일본인  
감별사들 보다 뒤지지 않을까에 대하여 그 방  
안에 몰두 중에 있습니다.

구라파지역 주재원들이 좀 더 본협회와 총지  
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면 절대로  
일본감별사들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  
다. 그래서 구라파 지역의 시장확보와 전망은  
밝은데 일원화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지부로서도 이점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 최근에 감별사의 대우는 어느 정도인지요?

요즘 어느 정도 구라파지역의 경기가 회복  
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실업자가 많  
습니다. 이런 중에도 감별사의 대우는 고소득  
층에 속하여 있어, 자택을 갖고 있고 자가용  
을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의사나 간호원, 광부들의 소득보다 훨씬 상회

하는 실정입니다.

### ■ 지부로서 시급한 문제점은? ■

저희 총지부의 임무가 매우 무겁다고 느껴  
집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본국 대한  
양계협회의 추천없이 감별사의 해외진출은  
않될 것이며, 이런 체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  
니다.

우리 주재원 모두가 자제하는 민족성을 갈  
고서 일본인과 대결해야 겠습니다.

이러한 기반조성이 이뤄진다면 우리 감별사  
의 해외진출은 밝다고 보며 해외에서도 서로  
오묘한 동거동락이 될 것입니다.

### ■ 시장확장의 가능성 여부는? ■

요즘 총지부에서 시장개척의 목표로 삼는 곳  
중 가장 전망이 좋은 것은 이태리 쪽입니다.

그곳에는 30여명의 일본감별사만 있고 한국  
감별사는 없는 실정입니다만, 그곳도 현재 주  
력을 다하여 시장개척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짙은 곳입니다.

독일은 현 70여명 감별사중 약 30명이 한국  
인 감별사입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감별가격  
을 떨어뜨려 타격이 컸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회복을 하여 요즘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일본인이 시장의 침해 염려로 여러번 협상을  
원했었습니다만 저희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이곳도 본협회와 총지부간의 협조가 체계적  
으로 이뤄진다면 독일에서의 시장확보도 장래  
성이 있다고 봅니다.

■ 일본 감별사들의 동태는? ■

일본인은 안정되고 중심지역의 시장은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일본인들의 체계를 보면 본국협회의 통제를 받아 총 지부는 지점의 인원차질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76년도의 해외진출 전망은? ■

독일에서 현재 우리 기존감별사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부터-14시까지 성실하게 감별을 하는 분이 3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년에 처리하는 숫자는 700만수 정도입니다. 하여간 그분들의 정력도 정력이지만 도두들 그분들의 성실성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을 본받는 길로 지향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위스의 경우는 1년에 80만수정도 감별하면 년 2만불 정도는 보장이 됩니다. 현재 1차적으로 소개장을 아프리카 북부와 중앙지역에 내었고, 가능성이 있어 76년 2월경 현지를 답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15명 이상 해외진출이 예상됩니다.

■ 국내 감별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

해외취업을 원하는 감별사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유럽지역을 잘 이해하시고 언어, 운전, 일반에치켓 정도는 미리 배우고 나와 주셨으면 하고 소극적인 사람보다 대국적인 대범성을 지닌 사람을 협회에서 선발하여, 사전에 교양과목으로 교육시켜 현지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렇게 하면 와서 방황하는 사람이 없이 현장에도 착하는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감별사의 위신은 물론 국위선양의 첩단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 국내 감별학원에 바라는 심정 ■

국내 감별학원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약

천금을 노리고 난립된 확대, 과도, 과잉선건을 하던 시대는 지나 같다고 보니, 옛날과 같은 관념에서 탈파하고 보다 자질있는 자를 선발하여 학원의 권위를 세워나가며, 협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기술향상에 일력을 다한다면 학원도 영구적인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76년은 진화위복의 해가 도래 할것이며 감별료도 올릴예정이다

■ 75년의 감별업계는 어떠 했습니까? ■



남 일 우 씨

<감 별 분 과>

75년은 한마디로 유래 없는 불황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수입계 수입증지로 일부 적은 부화장이 도산되었고, 이로인한 르생추의 수수가 줄어들드로 해서 감별사는 많은 반면에 감별사를 받아줄 부화장 마저 자

체 감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불황이 초래되지 않았다 봅니다. 그리고 감별료는 협정가격을 무시하고 그 이하로 기업주가 감별료를 책정하거나 월급제로 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의 감별업계가 되었습니다.

감별사는 특수기술직업인에 대하여 부화장근무자와 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은 저의 경우 10년동안 감별업계에 종사했 왔습니다만 현재 남은 것은 하나도 없고 시간만 낭비한 느낌입니다. 현재로서는 교통비, 식대 등등을 제하면 가정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외취업이라도 시원스러워야 되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재작년 25명이 대량 진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겨우 6명이 해외진출했습니다.

하여간 76년은 진화위복의 해가 도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 76년도의 감별업계의 전망은? ■



조성철 씨  
(감별분과)

76년도는 외국계수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별추 숫자가 약 20%는 줄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해외진출이 밝을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0여명정도는 진출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감별업계도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전망도 됩니다.

그동안 감별사들끼리 단합이 않되는 것은 생활보장이 않되어 생활고에 허덕이다보니 자연히 경쟁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업계가 잘 되는 길은 우리끼리 되도록이면 협정가격에 위배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등감별사가 되려면? ■

남: 고등감별사의 경우 100수씩, 500수를 7분내에 98%이상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감별사가 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합격을 한다 해도 직업감별사가 되기에는 노련한 경력이 있어야 만 됩니다.

고등감별사의 100%보장시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험료가 들어 감별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힘든형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낙오되는 감별사가 많습니다.

고등감별자격을 따드라도 최소한도 2-3천정도를 감별해야 약간 자신을 가질까 말까 한 실정입니다.

■ 협회의 힘을 빌리고 싶은 일은 ■

조: 그동안 감별업계가 불황이다보니 감별사끼리 자리 싸움이 많게 되었는데, 이러한 면은 법적인 제제나 자체내 단합뿐인데 똑같이 일자리를 나눠서 같이 공존공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보니 이러한 점은 양계협회가 통괄해서 면허제도나, 전표제도, 수수료 공제같은 시스템으로 유도되었으면 합니다.

■ 학원에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것? ■

남: 학원은 영리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지만 좀더 성실히 감별사를 가르쳐 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감별사로서의 완전한 자질을 가진자를 선발하여 국내는 물론 국외 어느곳에 가더라도 손색없는 감별사를 키워내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추대가 비싸기 때문에 승만쓰고 있는데 이것으로 완전한 감별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올바른 감별사의 양성을 위하여 부화장의 협조가 좀 더 아쉽습니다.

■ 감별료를 꼭 올려야 되는 이유는? ■

조: 감별료는 초생추를 4원선에서 3년전부터 묶여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상승추세로 보아 너무나 혈한가격으로 보이며, 계속감별사의 출혈을 보게 되는고로, 명년도는 다른 물가고에 대비하여 어쩔 수 없이 6원선까지 올리기로 감별분과 위원들의 합의를 보았으며 월내에 이 사항을 각 부화장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